

외화제목의 번역규범에 관한 기술적(descriptive) 연구 — 2014년도 국내개봉 영미(英美) 영화를 중심으로 —

임종우 이상빈*
(한국외대)

1. 서론

관객의 영화 선택에는 다양한 요소들이 작용한다. 예컨대 감독, 주연배우, 제작국가, 영화장르, 시놉시스(synopsis), 관람등급 등 영화의 제작 및 내용과 관련된 요소는 물론이고, 인터넷 포털이나 소셜 미디어의 평가 등도 영화의 선택에 있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영화의 ‘제목’도 영화를 선택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 최려화(2007)는 영화의 제목이 작품의 내용을 먼저 드러내는 만큼, 영화의 ‘첫인상’으로서 영화 흥행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주장했고, 김현태(2010)도 영화의 ‘얼굴’에 해당하는 제목이 일종의 슬로건이나 광고카피임을 역설하면서, 영화 제목이 영화의 상업적 목적을 달성하는데 미치는 영향력을 논의했다.

* 교신저자, 한국외국어대학교 EICC학과 교수, 전자우편: resangbin@daum.net

영화 제목이 중요한 만큼 영화를 제작하는 영화계에서는 영화의 내용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관객의 이목을 끌 수 있는 제목을 만들고자 노력한다. 다만, 국내영화의 경우 제목이 일종의 창작활동을 통해 만들어지는 반면, 국내에서 개봉되는 외화의 제목은 원제에 어느 정도 중속되어 만들어지는, 번역의 결과물에 해당한다. 특히 외화상영의 비중이 여전히 큰 국내시장의 상황을 고려해 본다면 외화제목번역의 중요성은 적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논문의 연구주제는 다음과 같다.

- (1) 국내에서 개봉되는 영미(英美) 영화의 제목은 어떻게 번역되고 있는가?
- (2) 본 연구의 시점과 맥락에서 번역 규범(norms)의 ‘외적 증거’(external evidence)로 간주할 수 있는 번역기법(translation techniques)에는 무엇이 있는가?

필자는 위의 두 질문에 답하기 위해 그간 번역학(Translation Studies)에서 논의되어 왔던 규범, 특히 기드온 투리(Gideon Toury)의 규범을 간략히 살펴보고 영화 제목의 번역과 관련된 국내외 주요 연구들을 검토해 볼 것이다. 이어 선행연구에서 확인된 다양한 번역기법을 확장 발전시켜, 본 연구의 분석에 적용할 번역기법(데이터분류기준)을 제시하고 2014년 국내에서 개봉된 영미영화 338편을 선별해 각 영화의 한국어 제목에 적용된 번역기법을 정량적 관점에서 기술할 것이다.

2. 선행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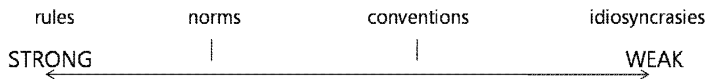
2.1 기술적 번역학(Descriptive Translation Studies)과 규범

투리에 따르면 번역학 연구는 처방적(prescriptive) 연구와 기술적(descriptive) 연구로 양분할 수 있다(Toury 1995). 처방적 방식은 번역 수행 시 모든 참여자가 따라야 하는 최적의(optimal), 올바른(correct) 해결책을 미리 제시하는 것이며, 이 때 참여구성원들은 제시된 처방을 따라야 하거나 따를 것으

로 기대된다. 이와 달리 기술적 방식은 현존하는 다양한 텍스트를 찾아내 기술 함으로써 참여자가 따르고 있는, 숨겨진 번역 현상(phenomenon)을 그대로 드러 내는 것이다. 본 연구는 영화제목의 ‘올바른’ 번역기법을 처방하거나 규정하지 않고, 현존하는 번역기법을 최대한 포괄적으로 기술하는데 그 목적을 갖고 있 다.

투리에 따르면 기술적 연구를 통해 드러난 ‘일반적인’ 번역현상은 규범 (norms)과 결부 지을 수 있으며, 그러한 규범은 그림 1에서와 같이 “규칙”(rules)과 “특유성”(idiosyncrasies) 사이에 존재하는 추상적 개념이다.

그림 1. 규범의 위치(Munday 2012: 172)



투리는 모든 사람들이 따라야 하는 행위를 “규칙”으로 정의하였으며 그와 반대로 개별적으로 구현되는 자유 행위를 “특유성”으로 명명하였다. 규범은 규칙과 “관습”(conventions) 사이에 위치하는 것으로, 규범에 속한 행위를 점차 더 많은 사람들이 따르기 시작하면 규칙이 되고, 반대로 따르는 사람들이 적어지면 관습이 되거나 급기야 특유성으로 변모할 수 있다. 따라서 규범은 문화와 시대에 따라 다르다. 예컨대 어떤 나라에서 규범으로 인식되는 행위가 동시대의 다른 나라에서는 특유성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하며, 한 문화 안에서도 시대나 하위문화(subculture)에 따라 규범에 대한 이해가 완전히 다를 수 있다. 결국 번역의 규범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특정 시공간을 결정한 뒤 관련 텍스트를 포괄적으로 수집 기술해야 한다.

규범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규범과 관련된 “반복성”(regularities)을 파악하고 그 내용을 가급적 상세하게 기술해야 한다(Toury 1980).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아래의 인용문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특정 행위의 반복성과 규범에는 미묘한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 whatever regularities are observed, they themselves are not the norms.
They are only evidence of the latter’s activity, from which the norms

themselves (that is, the ‘instruction’ which yielded those regularities) are still to be extracted (Toury 1999: 15).

어떠한 반복성(regularities)이 관찰되든지 간에 반복성 자체가 규범이 될 수는 없다. 반복성은 규범이 작용했다는 외적 증거에 불과하다. 규범(반복성을 가능케 하는 영향력[instructions])은 규범의 작용으로부터 추출되어야만 한다(필자의 번역).

결국, 투리가 주장하는 번역규범이란 (여러 번역자를 통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번역텍스트의 특징을 의미한다기보다는 그러한 특징을 발현시키는 번역자의 사회 심리적 요소나 개체에 가깝다(Schäffner 2010: 239).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영역의 번역규범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번역텍스트의 반복성, 즉 번역규범의 외적 증거물을 기술해야 하며, 그러한 증거물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때만이 규범의 실체에 한 발 더 가까이 갈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번역규범의 추상적 개념을 해석하거나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시공간에서) 번역규범이 만들어낸 외적 증거를 찾아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는데 있다.

2.2 영화 제목의 번역

영화제목의 번역은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번역학의 탐구대상으로서 충분한 관심을 받지 못했다. 또한 소수의 관련 연구들도 대규모 데이터를 기반으로 상세한 분석을 시도했다기보다는 매우 제한된 자료를 기반으로 연구자의 분석과 판단을 (조심스럽게) 일반화한 경우가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선행 연구들은 본 연구가 참고할만한, 흥미로운 연구방법과 결과를 포함하고 있다.

먼저 신광순(1998)은 「프랑스 영화 제목의 한국어 번역에 관한 제문제: 한국에 비디오로 출시된 프랑스 영화를 중심으로」라는 연구에서 프랑스 영화 제목의 번역방법으로 “직역”, “개명”, “발음모사”라는 세 가지 번역기법을 소개하였다. 여기서 직역이란 프랑스어로 된 영화 제목을 한국어 대응어로 바꾸는, 단어차원의 치환을 의미하며, 개명은 프랑스어 원제와 상관없는 새로운 제목을 만드는 것이다. 발음모사는 원제를 구성하는 단어의 소리를 한국어로 옮기는

것으로, 본 연구의 용어를 빌자면 ‘음차’에 해당한다. 신광순의 연구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신광순은 각 번역기법이 사용된 영화 제목을 소개하고 ‘오역’에 대한 대안을 내놓는 등, 일종의 처방적 방식을 수용하였다. 둘째, 그가 제시한 세 가지 번역기법은 국내에서 상대적으로 접하기 어려운 불어권 영화를 겨냥한 것이다. 소수 언어권의 영화 번역은 (수입되는 영화물량이 적은만큼) 번역자 개인의 성향에 영향을 받기가 상대적으로 용이하며, 불어권과 영미권 영화의 번역 현상이 무조건 동일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민구(2004)는 「중국영화번역의 수사학: 제목과 자막을 중심으로」라는 연구를 통해 중국영화제목의 번역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수사학적 기법을 소개하고, 영화제목과 자막번역에 대한, 비교적 상세한 분석틀을 제시했다. 하지만 그가 분석대상으로 삼은 ‘영화제목’과 ‘영화대사’는 일반적으로 그 번역방식이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기준에 따라 일괄적으로 분석되는 듯하다. 또한 분석 데이터가 특별한 기준 없이 선정되어 연구결과가 모든 중국영화에 적용될 수 있는지 의문이다.

김순영(2006)은 「스코포스의 관점에서 본 영화제목 번역 유형」이라는 연구에서 영화 제목의 방식을 크게 “음차”, “직역”, “명시화”, “창의적 번역”으로 분류하고, 각 번역방식의 장점과 단점을 제시한 바 있다. 그의 연구는 번역실무자를 위한 유용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나, 번역전략의 장단점에 대한 그의 주장이 처방적 산물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보다 광범위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한편, 메이(Mei 2010)는 영화제목에 “정보적 스코포스”(Informative Skopos), “미학적 스코포스”(Aesthetic Skopos), “상업적 스코포스”(Commercial Skopos), “문화적 스코포스”(Cultural Skopos)라는 네 가지 스코포스가 존재하고 각 스코포스에는 적절한 번역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문제는 실제 번역상황에서 어떠한 스코포스를 우선적으로 따라야 할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으며, ‘스코포스에 적합한 번역전략’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결론을 내리기가 어렵다. 또한 메이는 각 스코포스의 유형에 따라 10여개 내외의 사례를 단순히 열거하고 있다.

오미형(2012)은 「한국영화의 제목번역 고찰」이라는 연구에서 한국영화의 제목이 영미권 영화시장에서 어떻게 번역되는지를 살펴보고 그 내용을 다섯 가

지 방식으로 체계화하였다. 이 중 첫 번째 방식은 “무번역”(zero translation)으로, 출발텍스트가 영어로 되어 있어 사실상 번역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이다. 두 번째는 “음차”(transliteration)로, 출발어를 도착어의 발음 규칙에 따라 적는 것을 의미한다. 세 번째는 “직역”(literal translation)으로, 한국어 제목의 어휘를 영어 대응어로 전환하는 것을 뜻한다. 네 번째는 “조절”(adaptation)로, 직역과 달리 영어 대응어가 존재하나 대응어가 아닌 다른 어휘를 사용하거나 형식 등의 요소에 변화가 발생한 경우를 의미한다. 마지막 “새로 쓰기”(text production)는 원래의 영화제목과 의미가 완전히 다른 제목으로 번역하는 것을 뜻한다. 오미형의 연구는 영화 제목의 번역기법을 체계적으로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분석대상이 한영번역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필자는 오미형이 제시한 용어 또는 개념을 참고하여, 영미영화제목의 한국어 번역에 적용 가능하도록 일곱 가지의 번역기법을 제시할 것이다.

한편, 조영희(2014)는 401편의 미국영화를 대상으로 영화제목이 한국과 일본에서 각각 어떻게 번역되는지를 비교분석하였다. 특히 그는 “음역”, “직역”, “의역”, “개역”의 네 가지 번역기법을 소개한 후 두 문화의 번역양상을 정량 정성적 관점에서 제시하였다. 하지만 그가 사용한 자료는 1998년부터 5년 간격(1998년 167편, 2003년 111편, 2008년 123편)으로 수집된 것으로, 특정 시기를 고려할 경우 데이터의 규모가 작은 편이었다. 또한 번역현상과 번역규범은 특정 문화 내에서도 시대에 따라 변할 수 있는 만큼 분석결과의 의미에도 제한이 있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상빈(2015)은 한국영상자료원의 DB를 기반으로 2014년에 제작된 국외 극영화 포스터 415개를 검토하면서 영화포스터의 번역을 광고이론 및 명시화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특히 그는 영화제목의 명시화 양상을 (1) ‘음차+서브 헤드라인’을 통한 명시화, (2) ‘다시쓰기’를 통한 명시화, (3) 서체변형을 통한 명시화로 구분한 바 있다. 하지만 이 연구는 명시화와 관련된 제목 번역만을 고찰하여 명시화를 취하지 않은 영화 제목에는 그 결과를 적용하기가 어렵다. 특히 “외화포스터의 헤드라인은 상당부분 음차의 방식으로 번역”(p. 183)된다는 그의 주장은 남윤지(2015: 98)와 마찬가지로 실증적인 데이터를 근간으로 하지 않았다. 추후 논하겠지만 본 연구는 영미영화의 제목이 상당 부분 음차의 방식으로 번역된다는 추정을 구체적인 데이터로 확인시켜 줄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기존의 연구들은 주로 한정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제목 번역의 ‘오류’를 찾아내고 연구자의 ‘모델’을 통해 올바른 번역방식을 제시하는 양식을 따랐다. 특이한 점은 선행연구 가운데 영미권 영화의 제목을 대상으로 번역현상을 분석한 사례가 예상외로 많지 않았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영화시장의 한 주기(cycle)에 해당하는 1년 치 분량의 번역쌍을 수집하여, 사용된 영한번역의 기법을 기술적 관점에서 탐구한다. 특히 본 연구의 초점은 (기존의 정성분석방식이 아닌) 대규모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정량분석을 통해 특정 번역현상을 비교적 객관적인 방식으로 규명하는데 있다.

3. 연구방법

3.1 데이터 선정

본 연구를 위해 선정된 영화는 2014년 국내에서 개봉된 미국 및 영국 영화로, 총 338편에 달한다. 영화의 원제(ST)와 국내 개봉작의 제목(TT)은 국내최대 포털사이트 중 하나인 네이버(Naver)에서 수집되었다. 네이버에서는 ‘네이버 영화’(http://movie.naver.com)의 ‘디렉토리’를 통해 특정년도에 개봉된 영화를 검색할 수 있다. 일부 선행연구(오미형 2012; 이상빈 2015)의 경우 분석 자료를 한국영화데이터베이스(www.kmdb.or.kr) 또는 한국영상자료원(www.koreafilm.or.kr)에서 수집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검색이 용이하고 인터페이스가 친숙한 ‘네이버 영화’를 선택하였다. 다만, 자료의 장르가 공연실황, TV시리즈, 다큐멘터리인 경우에는 분석대상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제외하였다.

3.2 데이터 분류 및 코딩

필자는 신광순(1998), 김순영(2006), 오미형(2012), 조영희(2014) 등이 제시한 번역기법을 좀 더 세분화시켜 총 일곱 가지의 번역기법을 도출하고 이를 분석에 적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번역기법, 즉 제목번역의 분류기준은 ‘첨가’(addition), ‘정의’(definition), ‘직역’(literal translation), ‘생략’(omission), ‘새로 쓰기’(text production), ‘바꿔 쓰기’(rewriting), ‘음차’(transliteration)로, 그 분

류코드와 정의는 <표 1>과 같다.

<표 1> 번역기법의 분류코드와 정의

번역기법	코드	정의
첨가 Addition	A	원제에 없는 어휘가 첨가되는 것(영화내용, 배우이름, 주인공이름, 감독이름, 개봉년도 등이 주요 첨가대상임) 예: The Letters(ST) → 마더 테레사의 편지(TT)
정의 Definition	D	원제의 내용을 명시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콜론 등을 사용하여 부가적 정보를 삽입하는 것(김도훈 2008) 예: The Giver(ST) → 더 기버: 기억전달자(TT)
직역 Literal translation	L	원제의 단어 하나하나의 의미에 충실하게 번역하는 것 예: Before I Go to Sleep(ST) → 내가 잠들기 전에(TT)
생략 Omission	O	원제의 일부 단어가 없어지도록 번역하는 것 예: Poseidon Rex(ST) → 포세이돈(TT)
새로 쓰기 text Production	P	어휘적 수준(lexical level)에서 원제와 완전히 다르게 영화제목을 짓는 것 예: Ashes(ST) → 기억속에 퍼즐(TT)
바꿔 쓰기 Rewriting	R	원제의 일부내용을 원제와 관련 있는(의미가 비슷하거나 형태가 비슷한) 다른 어휘로 바꾸는 것 예: Big Ass Spider(ST) → 메가 스파이더(TT)
음차 Transliteration	T	원제를 구성하는 단어의 소리를 다른 문자로 옮기는 것 예: The Machine(ST) → 더 머쉰(TT)

본 연구는 수집된 338편의 영화제목을 표 1에 따라 분류 코딩하고 ST와 TT를 병기하여 각 영화에서 어떠한 번역기법이 사용되었는지를 분석하였다. 이해를 돕기 위해 분석결과의 일부를 제시하면 <표 2>와 같다.

<표 2> 영화제목번역의 번역기법 분류 예시

ST(영어 제목)	TT(한국어 제목)	A	D	L	O	P	R	T
The Two Faces of January	1월의 두 얼굴			■				
Odd Thomas	오드 토머스			■				■
Closed Circuit	프라이버시					■		■
A Walk Among the Tombstones	툼스톤				■			■
The Letters	마더 테레사의 편지	■		■				
Vendetta	벤데타: 피의 복수		■					■
While We Were Here	우리 사랑하는 동안			■			■	

표 2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영미영화의 제목은 ‘*The Two Faces of January* → 1월의 두 얼굴’(L: 직역), ‘*Odd Thomas* → 오드 토머스’(T: 음차) 등에서와 같이 한 가지 번역기법만으로도 번역되지만, ‘*The Letters* → 마더 데레사의 편지’(A+L: 첨가+직역), ‘*Vendetta* → 벤데타: 피의 복수’(T+D: 음차+정의)에서와 같이 두 가지 이상의 번역기법이 혼용되는 경우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일곱 가지의 번역기법이 사용된 경우를 정량적으로 분석하되, 두 개 이상의 번역기법이 혼용된 경우도 세분화함으로써 분석의 정확성을 높이고자 했다.

4. 분석결과

분석대상으로 수집한 338편의 영화제목을 일곱 가지 번역기법에 따라 분석 정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4.1 음차(Transliteration)

분석대상 338편 가운데 음차의 기법이 사용된 영화 제목은 총 223편으로, 이는 전체의 76.98%에 해당한다. 음차가 사용된 영화 제목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4.1.1 음차만으로 번역된 영화 제목

예) *The Machine*(ST) → 더 머신(TT)

예시된 영화 제목은 음차만으로 번역된 경우이다. 이처럼 음차만으로 번역된 영화 편수는 총 135편으로, 전체 338편 가운데 39.94%를 차지했다. 음차의 번역기법이 사용된 223편 가운데는 60.54%에 해당한다.

4.1.2 음차를 포함하여 두 개 이상의 기법으로 번역된 영화 제목

음차를 포함하여 두 개 이상의 번역기법이 사용된 영화는 총 88편으로, 이는 전체 338편의 26.04%, 음차가 사용된 223편의 39.46%에 해당한다. 음차를

포함하여 두 개 이상의 번역기법이 사용된 경우는 ‘음차(T)+첨가(A)’, ‘음차(T)+첨가(A)+생략(O)’, ‘음차(T)+생략(O)’, ‘음차(T)+직역(L)’, ‘음차(T)+첨가(A)+직역(L)’, ‘음차(T)+정의(D)’, ‘음차(T)+바꿔 쓰기(R)’, ‘음차(T)+첨가(A)+직역(L)+생략(O)’, ‘음차(T)+정의(D)+생략(O)’, ‘음차(T)+직역(L)+생략(O)’, ‘음차(T)+생략(O)+바꿔 쓰기(R)’, ‘음차(T)+첨가(A)+생략(O)+바꿔 쓰기(R)’ 등 총 12 가지 경우가 관찰되었다. 음차가 사용된 번역사례를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표 3> 음차가 사용된 경우

코드	예시	편수	비율(%)
T	The Machine → 더 머신	135	60.54
TA	Electric City → 톰헝크스의 일렉트릭시티	21	9.41
TAO	Silent House → 사일런트 스크림	20	8.97
TO	Seattle Superstorm → 슈퍼스톰	13	5.83
TL	I Am Omega → 아이 엠 오메가	11	4.93
TAL	TOM AND JERRY → 톰과 제리 아카데미 가다!	6	2.69
TD	The Giver → 더 기버: 기억전달자	5	2.24
TR	The Purge: Anarchy → 더 퍼지: 거리의 반란	5	2.24
TALO	Thomas & Friends: King of the Railway → 토마스와 친구들: 잃어버린 왕관	3	1.35
TDO	Mr. Peabody & Sherman → 천재강아지 미스터 피바디	1	0.45
TLO	How To Train Your Dragon 2 → 드래곤 길들이기 2	1	0.45
TOR	Dinocroc vs. Supergator → 다이노 슈퍼게이터	1	0.45
TAOR	Postman Pat: The Movie → 행복배달부 팻아저씨	1	0.45
	합	223	100.00

4.2 첨가(Addition)

338편의 영화 중 첨가의 기법이 사용된 영화 제목은 총 72편으로, 이는 전체의 21.30%에 해당한다. 분석대상 중 첨가의 번역기법만으로 번역된 경우는 없었다.

4.2.1 첨가를 포함하여 두 개 이상의 기법으로 번역된 영화 제목

첨가를 포함하여 두 개 이상의 번역기법이 사용된 경우는 ‘첨가(A)+음차(T)’, ‘첨가(A)+생략(O)+음차(T)’, ‘첨가(A)+직역(L)+생략(O)’, ‘첨가(A)+직역

(L)+음차(T)', '첨가(A)+직역(L)', '첨가(A)+바꿔 쓰기(R)', '첨가(A)+직역(L)+생략(O)+음차(T)', '첨가(A)+생략(O)+바꿔 쓰기(R)+음차(T)' 등 총 8가지 경우가 관찰되었다. 첨가의 번역기법이 사용된 사례는 <표 4>와 같다.

<표 4> 첨가가 사용된 경우

코드	예시	편수	비율(%)
AT	Electric City → 톰헝크스의 일렉트릭시티	21	29.17
AOT	Silent House → 사일런트 스크림	20	27.78
ALO	Bangkok Bound → 방콕 킥복서	13	18.06
ALT	TOM AND JERRY → 톰과 제리 아카데미 가다!	6	8.33
AL	The Letters → 마더 테레사의 편지	5	6.94
AR	Mysteria → 미스터리 예고살인	3	4.17
ALOT	Thomas & Friends: King of the Railway → 토마스와 친구들: 잃어버린 왕관	3	4.17
AORT	Postman Pat: The Movie → 행복배달부 팻아저씨	1	1.39
	합	72	100.00

4.3 새로 쓰기(Text production)

338편의 영화 중 새로 쓰기의 기법이 사용된 영화 제목은 총 69편으로, 이는 전체의 20.41%에 해당한다. 새로 쓰기가 사용된 영화 제목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4.3.1 한국어로 새로 쓰기가 된 경우

예) Frozen(ST) → 겨울왕국(TT)

예시된 영화 제목은 한국어(Korean: K)로 새로 쓰기(P)가 된 경우이다(분류 코드: PK). 이와 같은 경우는 총 32편으로 전체 338편의 9.47%, 새로 쓰기가 사용된 69편의 46.38%를 차지한다.

4.3.2 '음차'의 형식으로 새로 쓰기가 된 경우

예) Bigfoot(ST) → 자이언트 몽키(TT)

예시된 영화 제목은 음차(T)의 형식으로 새로 쓰기(P)가 된 경우이다(분류 코드: PT). 새로 쓰기에서 사용된 ‘음차’는 단순히 음차의 ‘형식’만을 빌리는 것으로, 원제의 ‘내용’을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 이와 같은 경우는 총 24편으로, 전체 338편의 7.10%를 차지한다. 새로 쓰기의 번역기법이 사용된 69편 가운데는 34.78%에 해당한다.

4.3.3 ‘한국어+음차’의 형식으로 새로 쓰기가 된 경우

예) Sweet Talk(ST) → 짜릿한 폰섹스컴퍼니(TT)

위의 예시는 ‘한국어(K)+음차(T)’의 형식으로 새로 쓰기가 된 경우이다(분류 코드: PKT). 이와 같은 경우는 총 13편으로, 전체 338편의 3.85%를 차지했다. 새로 쓰기의 번역기법이 사용된 69편 가운데는 18.84%에 해당한다. 새로 쓰기가 사용된 번역사례를 정리하면 <표 5>와 같다.

<표 5> 새로 쓰기가 사용된 경우

코드	예시	편수	비율(%)
PK	Frozen → 겨울왕국	32	46.38
PT	Bigfoot → 자이언트 몽키	24	34.78
PKT	Sweet Talk → 짜릿한 폰섹스컴퍼니	13	18.84
	합	69	100.00

4.4 직역(Literal translation)

338편의 영화 중 직역의 기법이 사용된 영화 제목은 총 66편으로, 이는 전체의 19.53%에 해당한다. 직역이 사용된 영화 제목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4.4.1 직역만으로 번역된 영화 제목

예) Four Assassins(ST) → 4명의 암살자(TT)

위의 예시는 직역만으로 번역된 경우이다. 이처럼 직역만으로 번역된 영화

는 총 16편으로, 전체 338편의 4.73%를 차지했다. 직역의 번역기법이 사용된 66편 가운데는 24.24%에 해당한다.

4.4.2 직역을 포함하여 두 개 이상의 기법으로 번역된 영화 제목

직역을 포함하여 두 개 이상의 번역기법이 사용된 영화편수는 총 50편으로, 이는 전체 338편의 14.79%, 직역이 사용된 66편의 75.76%에 해당한다. 직역을 포함하여 두 개 이상의 번역기법이 사용된 경우는 ‘직역(L)+음차(T)’, ‘직역(L)+첨가(A)+생략(O)’, ‘직역(L)+비꿔 쓰기(R)’, ‘직역(L)+첨가(A)+음차(T)’, ‘직역(L)+첨가(A)’, ‘직역(L)+첨가(A)+생략(O)+음차(T)’, ‘직역(L)+생략(O)’, ‘직역(L)+생략(O)+음차(T)’ 등 총 8가지 경우가 관찰되었다. 직역이 사용된 번역사례를 정리하면 <표 6>과 같다.

<표 6> 직역이 사용된 경우

코드	예시	편수	비율(%)
L	Four Assassins → 4명의 암살자	16	24.24
LT	John Dies at the End → 존은 끝에 가서 죽는다	14	21.21
LAO	Miami Magma → 마이애미 대침몰	13	19.70
LR	20 Feet From Stardom → 스타로부터 스무 발자국	6	9.09
LAT	Super Cyclone → 슈퍼 사이클론 스톱	6	9.09
LA	Pompeii → 폼페이: 최후의 날	5	7.58
LAOT	Merlin and the War of the Dragons → 멀린: 마법전사와 용의 기사단	4	4.55
LO	Poseidon Rex → 포세이돈	2	3.03
LOT	How to Train Your Dragon 2 → 드래곤 길들이기 2	1	1.52
	합	66	100.00

4.5 생략(Omission)

분석된 338편의 영화 중 생략의 기법이 사용된 영화 제목은 총 55편으로, 이는 전체의 16.27%에 해당한다. 분석대상 중 생략의 번역기법만으로 번역된 경우는 당연히 없었다.

4.5.1 생략을 포함하여 두 개 이상의 기법으로 번역된 영화 제목

생략을 포함하여 두 개 이상의 번역기법이 사용된 경우는 ‘생략(O)+첨가(A)+음차(T)’, ‘생략(O)+첨가(A)+직역(L)’, ‘생략(O)+음차(T)’, ‘생략(O)+첨가(A)+직역(L)+음차(T)’, ‘생략(O)+직역(L)’, ‘생략(O)+정의(D)+음차(T)’, ‘생략(O)+직역(L)+음차(T)’, ‘생략(O)+바꿔 쓰기(R)+음차(T)’, ‘생략(O)+첨가(A)+바꿔 쓰기(R)+음차(T)’ 등 총 9가지 경우가 관찰되었다. 생략이 사용된 번역사례는 <표 7>과 같다.

<표 7> 생략이 사용된 경우

코드	예시	편수	비율(%)
OAT	Silent House → 사일런트 스크림	20	36.36
OAL	Dracula: Reborn → 드라큘라 2014	13	23.64
OT	Breaking at the Edge → 브레이킹	13	23.64
OALT	Merlin and the War of the Dragons → 멀린: 마법전사와 용의 기사단	3	5.45
OL	Cosmos: A SpaceTime Odyssey → 코스모스	2	3.64
ODT	Mr. Peabody & Sherman → 천재강아지 미스터 피바디	1	1.82
OLT	How To Train Your Dragon 2 → 드래곤 길들이기 2	1	1.82
ORT	Dinocroc vs. Supergator → 다이노 슈퍼게이터	1	1.82
OART	Postman Pat: The Movie → 행복배달부 팻아저씨	1	1.82
	합	55	100.00

4.6 바꿔 쓰기(Rewriting)

338편의 영화 중 바꿔 쓰기의 기법이 사용된 영화 제목은 총 16편으로, 이는 전체의 4.73%에 해당한다. 분석대상 중 바꿔 쓰기만으로 번역된 경우는 없었다.

4.6.1 바꿔 쓰기를 포함하여 두 개 이상의 기법으로 번역된 영화 제목

바꿔 쓰기를 포함하여 두 개 이상의 번역기법이 사용된 경우에는 ‘바꿔 쓰기(R)+직역(L)’, ‘바꿔 쓰기(R)+음차(T)’, ‘바꿔 쓰기(R)+첨가(A)’, ‘바꿔 쓰기(R)+생략(O)+음차(T)’, ‘바꿔 쓰기(R)+첨가(A)+생략(O)+음차(T)’ 등 총 5가지 경우가 있었다. 바꿔 쓰기가 사용된 사례는 <표 8>과 같다.

〈표 8〉 바꿔 쓰기가 사용된 경우

코드	예시	편수	비율(%)
RL	While We Were Here → 우리 사랑하는 동안	6	37.50
RT	Big Ass Spider → mega 스파이더	5	31.25
RA	Mysteria → 미스터리 예고살인	3	18.75
ROT	Dinocroc vs. Supergator → 다이노 슈퍼게이터	1	6.25
RAOT	Postman Pat: The Movie → 행복배달부 팻아저씨	1	6.25
	합	16	100.00

4.7 정의(Definition)

338편의 영화제목 중 정의의 기법이 사용된 영화 제목은 총 6편으로, 이는 전체의 1.78%에 해당한다. 분석대상 중 정의의 번역기법만으로 번역된 경우는 관찰할 수 없었다.

4.7.1 정의를 포함하여 두 개 이상의 기법으로 번역된 영화 제목

정의를 포함하여 두 개 이상의 번역기법이 사용된 경우에는 ‘정의(D)+음차(T)’, ‘정의(D)+생략(O)+음차(T)’의 두 가지가 관찰되었다. 정의의 번역기법이 사용된 사례는 <표 9>와 같다.

〈표 9〉 정의가 사용된 경우

코드	예시	편수	비율(%)
DT	Vendetta → 벤데타: 피의 복수	5	83.33
DOT	Mr. Peabody & Sherman → 천재강아지 미스터 피바디	1	16.67
	합	6	100.00

5. 결론

본 논문의 결론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영미영화의 한국어 번역에 활용된 번역기법은 그 누적 빈도수에 따라 음차(223편), 첨가(72편), 새로 쓰기(69편), 직역(66편), 생략(55편), 바꿔 쓰기(16편), 정의(6편)의 순으로 나타났다. 각 번역기법의 사용 빈도는 압도적으로 많이 사용된 ‘음차’와 사용빈도

가 매우 낮은 ‘바꿔 쓰기’ 및 ‘정의’를 제외할 경우 큰 차이가 없었다.

둘째, 단일 제목 내에서도 두 개 이상의 번역기법이 혼용된 사례가 많았다. 정리하자면, 음차(88/223편, 혼용비율 39.46%), 첨가(72/72편, 혼용비율 100.00%), 직역(50/66편, 혼용비율 75.76%), 생략(55/55편, 혼용비율 100.00%), 바꿔 쓰기(16/16편, 혼용비율 100.00%), 정의(6/6편, 혼용비율 100.00%)의 번역기법이 다른 기법과 결합되어 사용되었다. 특히 ‘음차(형식)+새로 쓰기’(24편), ‘음차+첨가’(21편), ‘음차+첨가+생략’(20편), ‘음차+생략’(13편) 등과 같이 음차가 혼용된 번역사례는 전체 338편 가운데 비교적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셋째, 본 연구의 시점과 맥락에서 볼 때 ‘음차’만이 규범의 외적 증거로 해석될 수 있다. 음차의 경우 반복성을 논할 수 있을 만큼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새로 쓰기에서 형식상 음차가 사용된 경우(총 24편, 전체의 7.10%)까지 고려한다면 음차의 반복성은 더욱 더 두드러진다. 물론 앞서 언급하였듯이 음차 자체가 번역규범의 실체라고 주장하기는 어렵다.

본 연구는 몇 가지 한계점을 내포하고 있다. 첫째, 연구의 분석대상이 2014년 국내에서 개봉된 영미영화에 한정되었다. 앞서 논의하였듯이 번역규범을 탐구하기 위해서는 동시대, 같은 문화권에서 존재하는 ‘다양한’ 텍스트를 수집 분석해야 마땅하나, 본 연구는 1년 분량의 데이터만을 수집하여 규범을 논하고자 하였다. 또한 영미권 영화의 한국어 번역을 분석했기 때문에 다른 언어쌍이나 한영번역과 관련해서는 본 연구의 함의가 적을 수도 있다. 만일 각 언어쌍에서 본 연구와 유사한 방식으로 다년간의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한다면 보다 확실한 규범의 외적증거를 확보할 수 있음은 물론, 규범의 변이 양상까지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 제시한 번역분류기준(번역기법)이 ‘주관적’이라는 비판도 가능하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기존의 관련연구들은 영화 제목의 번역을 분석하기 위해 다양한 증거를 제시하였다. 따라서 동일한 코퍼스를 가지고 번역기법을 분류한다 하더라도 각 연구자의 분석들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질 여지가 있다. 본 연구 또한 이러한 비판으로부터 예외가 될 수 없다. 다만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활용된 번역기법을 포함하는) 일곱 가지나 되는 상세한 번역분류기준을 제시하고 그에 따라 세분화된 결과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다르다.

셋째, 본 연구는 현존하는 번역현상을 드러내기 위한 기술적 연구이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번역자의 판단, 특히 번역기법의 선택 등에 영향을 미치는 주변요소를 파악할 수 없다. 그러나 번역자의 판단(translational decisions)과 같이 인지, 해석, 심리 등과 관련된 영역은 본 연구가 그러했던 것처럼 현존하는 번역 현상을 가급적 세부적으로 기술해야만 확인이 가능하다. 예컨대 후속연구자들은 본 연구의 잠정적 결론을 바탕으로 음차가 자주 사용되는 이유를 번역자의 측면이나 사회문화적 배경 속에서 탐구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김도훈 (2008) 「Colon(:)의 기능 용례 및 영한 번역시 번역전략」, 『번역학연구』 9(1): 7-27.
- 김순영 (2006) 「스코프스의 관점에서 본 영화제목 번역 유형」, 『통번역교육연구』 4(2): 31-46.
- 나민구 (2004) 「중국영화번역의 수사학: 제목과 자막을 중심으로」, 『중국학연구』 30: 255-296.
- 남윤지 (2015) 「잃어버린 제목을 찾아서: 서사텍스트의 제목 번역에 관한 몇 가지 쟁점」, 『번역학연구』 16(3): 85-126.
- 신광순 (1998) 「프랑스 영화 제목의 한국어 번역에 관한 제문제: 한국에 비디오로 출시된 프랑스 영화를 중심으로」, 『한국프랑스학논집』 25: 107-139.
- 오미형 (2012) 「한국영화의 제목번역 고찰」, 『번역학연구』 13(1): 59-85.
- 이상빈 (2015) 「광고이론에 기초한 국내 외화포스터의 명시화 유형 분석」, 『번역학연구』 16(3): 173-196.
- 조영희 (2014) 「미국 영화제목 번역의 한일 비교」, 『통번역학연구』 18(4): 274-294.
- 최려화 (2007) 「중국영화제목번역에 대한 약간의 고찰」, 『중국조선어문』 5: 34-35.
- Mei, Zhongfang (2010) 'On the Translation Strategies of English Film Title from the Perspective of Skopos Theory', *Journal of Language Teaching and Research* 1(1): 66-68.
- Munday, Jeremy (2012) *Introducing Translation Studies*, third edition, London & New York: Routledge.

- Schäffner, Christina (2010) 'Norms of Translation', in Yves Gambier & Luc van Doorslaer (eds) *Handbook of Translation Studies*, Volume 1, Amsterdam & Philadelphia, John Benjamins, 235-244.
- Toury, Gideon (1980) *In Search of a Theory of Translation*, Tel Aviv: The Porter Institute for Poetics and Semiotics.
- Toury, Gideon (1995) *Descriptive Translation Studies and Beyond*, first edition, Amsterdam & Philadelphia: John Benjamins.
- Toury, Gideon (1999) 'A Handful of Paragraphs on "Translation" and "Norms"', in Christina Schäffner (ed.) *Translation and Norms*, Clevedon: Multilingual Matters, 9-31.

[Abstract]

**Identifying the Evidence of Norms at Work in Translating English
Movie Titles into Korean: A Preliminary Descriptive Study**

Lim, Jong-woo & Lee, Sang-Bin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This study aims to provide a comprehensive description of the ways in which English movie titles are translated into Korean, and to identify the evidence of norms at work in translating English movie titles into Korean. To this end, we analyzed 338 pairs of English and Korean movie titles according to seven translation techniques, namely ‘addition,’ ‘definition,’ ‘literal translation,’ ‘omission,’ ‘text production,’ ‘rewriting,’ and ‘transliteration.’ The data analyzed are the original and translated titles of American/British films released in Korea in 2014. Our findings show that the seven translation techniques are used in varying combinations and degrees, and that transliteration concerns a major norm at work in translating English movie titles into Korean.

▶ Keywords: movie titles, translation techniques, norms, descriptive translation studies, quantitative analysis

임종우(제1저자)

한국외국어대학교 일반대학원 영어번역학과 석사과정

ljworld1@naver.com

관심분야: 영상번역, 문화소 번역

이상빈(교신저자)

한국외국어대학교 영어대학 EICC학과 조교수

resangbin@daum.net

관심분야: 담화분석, 통역평가

논문투고일: 2016년 1월 30일

심사완료일: 2016년 2월 29일

게재확정일: 2016년 3월 7일